



&lt;8&gt; 전남 6개 군수

## 출마예정자만 11명…민주당 경선 ‘승부처’

### 구례군수

김순호 군수 3선 도전 나서  
경선방식·후보 단일화 촉각

내년 6월 치러지는 구례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은 9명이다. 현직 김순호 군수는 재선을 거쳐 사실상 3선 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선 7·8기 동안 양수발전소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지역 내 탄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다는 평가다.

정현택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지역위원회 자문위원장도 유력 주자다. 행정 경험과 현장 네트워크를 쌓아온 인물로, 직전 선거에서의 득표 경험에 재도전의 동력으로 거론된다.

정길선 구례군의회 의장도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된다. 전남도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낸 그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공개 토론과 주민 참여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현창 의원 역시 도의회 활동을 통해 쌓은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조·광역의회와 지역 단체 출신 인사들도 대거 거론된다. 선상원 구례군의원,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 흥봉만 더민주혁신위원

회 구례군 공동대표가 그들이다. 이밖에 도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신동수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출마가 예상된다. 혁신당에서는 전남도의원을 지낸 이창호 구례군의원과 정양조 전 구례군 사무관이 후보로 꼽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유력 후보들 경선 참여 빨간불…판세 요동

### 강진군수

당원권 상실 영향…재심 주목  
차영수·김보미, 민주 경선 준비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를 포함한 유력 후보들이 불법 당원모집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권 상실’이라는 징징계를 받으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강진원 현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이후 과 관련해 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징계 처분을 받았다.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도 같은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민주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만약 재심이 기각될 경우 강 군수와 오 전 차관보는 각각 1년과 6개월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자격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 군수나 오 전 차관보가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강 군수는 과거 무소속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인물론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차영수 도의원은 제11대와 12대 전남도의회에서 활동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예산과 입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강진·미량 구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기여했다.

김보미 군의원도 강진군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하며 군수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비례적 젊은 나이에 의회 수장을 역임하면서도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이끌었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주력해 안다는 평가다.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흔들리면서 민주당 공천 경쟁과 함께 입지자들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gnnews.co.kr

## 김산 군수, 현역 프리미엄 업고 3선 도전

### 무안군수

민주당 소속 후보 4명과 경쟁  
경선 결과 따라 선거 판가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불복하며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김산 군수는 이번엔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산 군수는 재선 임기 동안 굵직한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맞물린 남악·오룡 신도시 정주 여건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행정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동시에 갖춘 김 군수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선거 구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만



재기를 노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야권에서 뚜렷한 후보군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제3지대 출마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nnews.co.kr

## 민주당 당원권 정지 변수…현역 거취 주목

### 화순군수

구복규 군수, 신중모드 돌입  
민주 후보 6명, 혁신당 가세

재선에 도전하려던 구복규 군수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어렵게 되면서 지방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구 군수는 최근 불법 당원모집 의혹으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징계를 받았다.

구 군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번복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게 정계의 판단이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6명 정도가 언급된다. 임지락 도의원은 백신산업특구 고도화,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조례, 광역철도 건설 촉구 등 현안 의제에서 실적을 쌓아 ‘경밋빛’ 구호보다 활동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문행주 전 도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



이라는 뿌리를 내세워 현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 애당’ 역할을 자임하고, 외과조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싣고 있다.

구 군수는

이후 박복규 전 군수와 함께



이라는 뿌리를 내세워 현 지역에 대한 ‘정책 대안 애당’ 역할을 자임하고, 외과조직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싣고 있다.

민관·산학 협력 체계를 넓혀 실무와 정책을 동시에 꿔릴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 밖에도 강순팔 전 화순군의원, 맹환

렬 화순발전포럼 회장 등이 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에서는 계란을 정기배송하는 서

비스를 청약한 김희수 포프리 대표가 출

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gwangnam.co.kr

## ‘사면 복귀’ 박우량 5선 도전…선거판 재편

### 신안군수

민주당 후보와 경선 치열  
혁신당 등과 본선 경쟁도

신안군수 선거가 박우량 전 군수의 사면·복권을 기점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박 전 군수의 복귀는 그동안 형성되던 민주당 후보보다 구도를 단숨에 흔들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민선 4·5·7·8기 군수를 지낸 박우량 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8·15 특별법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박 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8·15 특별법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박 전 군수는 5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판도는 급변했다. 민주당 진영은 박 전 군수를 포함해 다수 경쟁이 불가피하다. 당내 후보군으로는 김행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석배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감사, 임홍민 전남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 김태성 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 위원이 거론된다. 각 후보는 해양·농수산 정책 전문성, 공공기관 경영 경험, 현장 중심 행정, 조직 관리 능력 등을 내세운다. 박석배, 임홍민, 정광호, 정연선

당에서는 고봉기 해양항만기술행정사무소 대표와 정연선 전 전남도의원이 출마를 예고했다. 해양·항만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앞세워 민주당 일색의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nnews.co.kr

## 공영민 재선 채비…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 고흥군수

민주 후보와 경선 격돌  
치열한 정책 대결 예고

전남 고흥군수 선거는 공영민 군수의 재선여부가 관심사다. 공 군수에 맞서 지역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고, 비교적 젊은 세대로서 세대교체론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류준오 민안군체육회장은 지역 체육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인물이다. 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기반을 넓혀 왔고,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도 이어가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은 재선 군의원과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선 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산업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고흥·봉래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 등 지역 내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내면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류제동 현 고흥군의회 의장도 고흥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물밀 작업에 한창이다. 군의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생활 현안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실



행정력을 바탕으로 ‘중앙 특위’와 ‘예산 동원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박준희 전 고흥군 기획실장은 명예퇴직 후 선거전에 돌입. 표심을 다지고 있다. 지방고시 출신인 박실장은 고흥읍장, 도영읍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등 28년간 고흥군 주요 핵심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현장형 리더십과 군민 참여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신순식 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출마가 예상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경제 행정조정관, 전남체신 청장, 부산체신청장 등을 역임한 신 전 실장은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리더십과 예산 확



보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의 공천 여부가 확정될 경우, 본선 구도는 지금과 다른 결을 떨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선 민주당 경선이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1177@gnnews.co.kr